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65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1월 31일 (음력 12월 26일) 목요일

‘손혜원 불똥’ 목포 재개발 사업 좌초 위기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기 의혹' 불똥이 된 전남 목포시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개발 예정부지 내 조선내화 옛 목포공장의 문화재 등록에 이어 시공사가 사업 참여를 철회하는 악재가 겹치고 있다.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중흥토건(주)과 보광종합건설(주) 컨소시엄은 29일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측에 시공사 참여 철회를 통보했다.

이들 기업은 "허려 여건 상 조합에서 추

문화재 등록 이어 시공사 참여 철회 '악재 겹쳐'

"수익성 없다" vs "조합원 의견 수렴 거쳐 진행"

진하는 서산·온금지구 재정비촉진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해 시공사 참여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중흥토건 등은 지난 2017년 7월 조합 총회를 통해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최근 '손혜

원 사태' 이후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업 추진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손 의원은 최근 불거진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배후로 서산·온금지구 사업 주체를 지목했

다. 또 중흥 측의 인근 학교부지 매입을 두고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도 시공사 참여 철회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목포시의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사업은 당초 38만8463㎡ 부지에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아파트와 주상복합, 빌라형 건축물을 건립하는 도심재생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2·3구역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조합도 결성하지 못하면서 무산되자 1구역만의 추진으로 가다가 잡혔다.

시공사로 중흥토건 등이 선정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는 듯 했으나 지난해 말 사업지구 내 조선내화 옛 목포공장이 문화재로 등록되면서 압축에 부딪혔다.

조선내화 옛 목포공장은 1구역 재개발사업의 계획면적 20만346㎡ 중 2만9230㎡로 14%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내화 측은 이 뿐만아니라 추가로 공장 전체를 문화재로 등록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조선내화 부지가 사업지에서 제외될 경우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어 사실상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개발조합 김대식 조합장은 "이 곳은 적산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발을 위해 수년간 고생해 왔는데, 조합원들의 상심이 크다"면서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은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조합장은 이어 "설 이후 조선내화 측과 부지편입과 제척 등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며 "개발계획 변경 등의 진행상황을 보고 시공사 선정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봄이 왔어요” 입춘(立春)을 뜻해 앞둔 30일 오후 대구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한학촌에서 대학생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계명서화아카데미 선생님들이 써준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 입춘첩을 대문에 붙이고 있다.

Photo漫評

불안

오는 3월 한진그룹 주총을 앞두고 사모펀드 케이시아이(KCGI)의 공개가강화되고 있다. 한진칼의 2대 주주인 케이시아이는 최근 한진칼 및 한진 소액주주들에게 신상정보와 주식 수를 묻는 이메일을 보낸 데 이어 한진칼과 한진에 주주명부 열람 및 복사기처분신청을 냈다. 한진칼은 케이시아이의 신상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서울중앙지법에 한진칼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기처분을 신청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한진도 같은 날 케이시아이의 쪽안케이앤코를 당사가 주주명부 열람·복사기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케이시아이 측은 7처분 신청을 통해 한진칼과 한진에 해당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7영업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적된 말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 · 자료사진=뉴시스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수도...

조양호



아빠 죄송해요

조현아



나 지금 멀고 있나?

조양호

신봉우 기자

금호타이어 노사 단체교섭 '잠정 합의'

금호타이어 노사가 58일 만에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금호타이어는 전날 제12차 본교섭을 열고

경영목표 달성을 비롯해 조속한 경영정상화 과업 달성과 흑자구조 전환 토대 마련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노사 직면한 위기 상황 공감...58일 만에 합의점 도출 · 내달 13일 투표

회사 생존 · 미래존속 위한 인원 안정화 · 불합리한 제도 개선 기틀 마련

2018년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잠정 합의안 도출로 금호타이어는 2019년

잠정 합의안 주요 내용은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실천 합의서 작성 ▲임금체계 개선 ▲단체협약 개정 ▲설비부

자 ▲성형수당 지급 ▲2019년 생산 운영 등이다.

이번 교섭에서 임금 인상안은 논의 되지 않았다. 노사는 임금체계 개선과 국내공장 설비투자 필요성에 상호 동의하고 향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타이어 성형수당을 신설·지급하는데 합의했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실천 합의서'는 급변하는 경영위기 상황에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 '영업·생산·연구·물류' 등 전 분야에서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공장운영을 정상화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합의서 주요 내용은 ▲해외영업 현장 방문을 통한 영업 활성화와 방안논의 ▲영업 판매 확대 · 시기 진작을 위한 타이어 할인

쿠폰 지급 ▲퇴직금 운영 개선 등이다.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고용세습 논란을 불러온 조합원 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삭제하고 민60세 연말을 정년으로 조정·개정했다.

노동조합은 잠정 합의안에 대해 내달 11일~12일께 조합원 설명회를 하고 13일 임시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대진 금호타이어 부사장(대표이사)은 "현재 회사가 직면한 경영위기를 노사가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마음가짐으로 고민한 결과 교섭이 마무리 될 수 있었다"며 "금호타이어의 새로운 출발과 미래 존속을 위해 앞으로도 노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자"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광주교육 청렴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

광주광역시교육청

The 청렴하기-면 더 행복해요!

